

「온누리 캠페인」 2009년에도 Go! Go! Go!

|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



사회 소외계층을 방문해 정보보호 활동과 다양한 사회봉사를 펼쳐 화제를 모았던 온누리 캠페인. 2009년 한층 업그레이드된 봉사활동을 모토로 한 '2009년도 온누리 캠페인 봉사단'이 지난 3월 발대식을 가졌다. 지난 2008년 무료 봉사단 50여명으로 시작한 온누리 캠페인은 복지회관, 양로원 등을 이룬바 사회 소외계층을 방문해 이들에게 백신설치, 악성코드 제거와 같은 정보

보호 활동은 물론, 휴대전화와 같은 IT 기기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이날 발대식에서는 지난해의 성공적인 활동에 기인해 새롭게 등장한 홍보대사 '빼꼼'이 등장하는 등 2009년 봉사활동에도 많은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2009년 한해에도 그 누구보다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할 '빼꼼'과 봉사단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S

